

## 2016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6,607,189	전월이월금	6,490,189
지 로	3,627,680	우리은행	5,517,880
국민은행	5,099,000	하나은행	1,257,160
조흥은행	125,020	신한은행	1,425,180
외환은행	445,000	제일은행	240,080
농 협	1,485,000	기업은행	250,000
우 체 국	75,000	지정기탁	570,000

###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11,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베다니아의 집	1,311,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4,736,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70,000	장기수선총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4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570,000	산재, 진폐환자가정 생활비
지 출 총 액	23,861,000	잔액(이월금)	2,746,189

### <쉼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25	1	1	25
베다니아의 집	5	4	0	9
벗들의 집	15	0	4	11
사랑의 집	12	2	5	9
마고네공부방	10	0	0	10



###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거리

후원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밤새 비바람 치는 소리가 심란하게 만들더니 청명한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밤샘 뒤척임을 잊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어느 책에서 유머를 읽었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미국의 어느 성당 앞에 거지가 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지를 위로하시며 왜 울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거지가 대답하기를 "성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더럽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제발 성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거지가 청하자 예수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겠는걸! 저들이 나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

시간이 지나고 교회의 사제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면서 특히, 이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위의 유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웃기지 않은 웃기는 이야기로 저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제주도에서 피살된 미등록 중국여성의 유가족들의 입국을 돕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에는 상상을 넘는 반대와 조롱과 멸시로 댓글 창을 장식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화나게 만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사회를 둘러보면 이주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한 지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한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인간으로서 봐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피살된 중국여성이 바로 내 옆집에서 함께 웃고, 울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이라면 과연 유가족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곁에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주민의 날 담화문에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하여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약하고 병들고 죽음을 당해도 가까이 있지 않기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며 함께 하려고 할 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마다는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의 형제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과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만남의 문화의 축진에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는 줄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대는 주고받기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2016년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문-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견고자 하시는데, 우리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시는데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비를 보여줍니다." -자비의 얼굴 8항-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비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성모성월을 보내며 후원 회원 여러분의 기도가  
성모님의 전구로 이루어지시길 염원하며

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평안** **마르코** 신부

## 공지사항

###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6월 후원미사는 20일, 7월 후원미사는 18일, 8월 후원미사는 22일에 봉헌합니다.

8월 후원미사는 셋째 주 월요일(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넷째 주(22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6년 4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9명입니다. 그 중 몽골 환아(남, 16세)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3년 2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 받고 퇴원 후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5월말에 귀국했습니다.

몽골에서 생활하던 중 환아가 급성 빈혈증상을 일으켜 혈액 검사하였으나 신장이식 수술 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보증금 5백만 원을 내고 의료비자를 받아 2016년 4월 12일에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환아 상태가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옮겨 추가치료와 투석을 받았습니 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의사의 소견은 혈액이상으로 인한 빈혈증상이 나타났고, 신장의 기능이 무리가 심해 기능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약물치료로 기능은 좋아지고 있으나 일주일에 2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직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치료비로 넣은 보증금을 다 사용하여 원무과에서 퇴원 명령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원금 환자 긴급지원금과 모금을 통해 4월 27일에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리며 그동안 일주일에 3회 투석을 받아야합니다. 이 환자를 위해 신문모 금이나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에 지원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빠른 쾌유를 위해 후원회원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서울성곽나들이



성북경찰서 견학